

## 문헌비평을 위한 서평의 분석적 고찰 — 서평문화와 출판저널을 중심으로 —

김 상 호\*

### 목 차

1. 서 언
  2. 서평대상문헌의 범위
  3. 서평자의 선정
  4. 서평의 구성요소와 그 전개
  5. 결 언
- 참고문헌

### 1. 서 언

문헌을 비평한다는 것은 인간의 정신적 소산인 저작물을 비평자가 주관적인 관점으로 해석하고 평가하여 기술하거나 논술하는 지적 활동을 말한다. 그러므로 문헌비평은 본격적인 문헌연구에 비해 학문적 체계성은 떨어지지만 문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평가라는 측면에서 주제분야 및 문헌전반에 관한 상당한 전문성을 요구하는 일이다.

문헌비평은 비평대상인 문헌의 범위에 따라 단일 저작에 대한 개별적 비평, 특정 논제 및 저자의 주요 저작에 대한 집단적 비평, 그리고 특정 분야의 모든 문헌을 망라적으로 평가하는 총체적 비평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독자 및 이용자의 전문성 여부에 따라 전문적 비평과 일반적 비평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이러한 문헌비평은 근본적으로 개인이나 집단, 기관, 사회적 요구에 맞는 문헌을 조사 선택하고, 관련 문헌정보를 제공하며, 창의적인 저술의 출판과 독서를 권장하고, 역기능적인 문헌의 생산을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문헌비평의 활동은 본래 도서관을 중심으로 공

---

\* 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

## 2 한국비블리아 제 7 집

식 비공식의 방법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대중매체를 통해 다루어지기도 하였다.

그런데 최근 문헌의 제작방법이 혁신적으로 개선됨으로써 저작자의 대중화, 출판사의 대량화시대를 맞이하게 되었고, 무절제한 문헌의 범람으로 인해 올바른 문헌의 선택이 더욱 절실한 사회적 과제가 되었다.

따라서 지금까지 도서관의 자료선택 및 참고봉사분야, 학교 및 사회교육기관 등의 독서상담분야, 출판사의 기획 및 편집분야, 신문 잡지 방송 등 대중매체의 독서출판 및 서평분야에서 활동하였던 인원의 전문성 확보와 적극적인 사회참여의 필요성이 보다 증대되고 있다.

이에 그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문헌비평의 방법론을 모색하기 위해 문헌비평의 핵심 영역이라 할 수 있는 서평에 관해 분석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서평의 분석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서평전문지인 서평문화와 출판저널에 1991년부터 1993년까지 3년동안 게재된 서평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분석내용은 서평대상문헌의 범위와 서평자의 선정, 서평의 구성요소 세가지 측면에 한정하였다.

## 2. 서평대상문헌의 범위

서평을 게재하는 매체는 크게 신문과 잡지로 구분되며, 잡지는 다시 학술 및 전문잡지, 교양 및 대중잡지, 서평전문지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서평매체는 그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 아니라, 서평전문지를 제외한 어느 것도 아직 공식적이고 권위있는 서평매체로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매년 새로 발간되는 2 만종 이상의 도서 가운데 서평의 형식으로 독자에게 소개되는 문헌은 단지 저명한 저자의 저작이나 뉴스의 가치가 있는 저작, 해당주제분야에 상당한 공헌이 있는 저작<sup>1)</sup> 등에 한정될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서평전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1991

---

1) Leroy C. Merritt, *Reviews in library book selection*. Detroit: Wayne State Univ. Press, 1958. p. 18

년부터 계간으로 발행하고 있는 서평문화와 한국출판금고에서 1987년부터 격주간으로 발행하는 출판저널이 있다. 이들 서평전문지에 1991년부터 1993년까지 만 3년동안 게재된 서평은 모두 736편이다. 서평문화가 과거 3년동안 총 12집에 총 225편에 달하는 서평을 게재하였으며, 출판저널은 같은 기간동안 총 66호의 발행에 총 511편의 서평을 수록하였다. 한번 발행할 때마다 서평문화가 평균 19편, 출판저널이 평균 8편의 서평을 게재한 셈이다.

이들 서평지는 특정 주제에 국한된 전문서평지와는 달리 모든 주제를 포괄하는 일반서평지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서평의 주제별 구성분포에 있어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시대적 상황과 사회적 요구, 잠재적 독자의 성향, 개별 문헌의 질적 가치, 그리고 주제별 출판종수 등의 요소들을 고려한 서평대상문헌의 선정기준과 방침의 결정이 필요하다.

서평대상문헌의 범위는 문헌의 주제, 유형, 발행국가 및 언어, 독자층 등을 기준으로 살펴볼 수 있다. 서평문화와 출판저널에 수록된 서평을 먼저 주제별로 구분해보면 표 1과 같다.

서평대상문헌의 주제별 분포는 표 1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문학 언어, 사회과학, 역사, 철학 종교, 과학 기술, 예술

<표 1> 주제별 서평수

주제	서평지		서평문화		출판저널		계	
	수	%	수	%	수	%	수	%
철학 종교	24	10.7	64	12.5	88	12.0		
사회 과학	56	24.9	136	26.6	192	26.1		
문학 언어	62	27.6	172	33.7	234	31.8		
역사	38	16.9	58	11.4	96	13.0		
과학 기술	29	12.9	40	7.8	69	9.3		
예술	16	7.1	31	6.1	47	6.4		
기타			10	2.0	10	1.4		
계	225		511		736			

4 한국비블리아 제 7 집

순으로 나타난다. 서평문화와 출판저널의 주제별 분포 상의 공통적인 경향은 가장 광범위한 독자층을 가지고 있는 소설이 포함된 문학 언어분야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사회과학분야가 다음을 차지하며, 예술분야가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서평문화와 출판문화의 주제별 분포는 비록 그 차이가 미미하여 전반적인 주제별 분포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으나, 전자가 역사, 과학기술, 예술에서 후자가 문학, 사회과학, 철학 종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낸다. 이는 두 서평전문지의 기관지와 상업지라는 서로 다른 성격과 편집방침에 따른 차이점이라 하겠다.

<표 2> 주제별 출판종수

주제	연도		1991		1992		1993		계	
	종수	%	종수	%	종수	%	종수	%	종수	%
철학 종교	2,486	15.7	2,652	15.9	2,720	15.0	7,858	15.5		
사회 과학	3,276	20.7	2,874	17.2	3,106	17.1	9,256	18.3		
문학 언어	5,407	34.2	5,592	33.5	6,479	35.7	17,478	34.5		
역사	647	4.1	953	5.7	924	5.1	2,524	5.0		
과학 기술	2,560	16.2	3,276	19.6	3,406	18.8	9,242	18.2		
예술	1,113	7.0	1,130	6.8	1,173	6.5	3,416	6.7		
기타	303	1.9	232	1.4	350	1.9	885	1.7		
계	15,792		16,709		18,158		50,659			

이러한 서평의 주제별 분포는 해당기간동안 우리나라에서 출판되었던 일반도서(아동도서 및 학습참고서 제외)의 주제별 출판종수<sup>2)</sup>(표.2)와 비교해 보면 몇가지 차이점이 드러난다. 첫째, 출판종수의 주제별 분포는 문학 언어, 사회과학, 과학기술, 철학 종교, 예술, 역사의 순서로 서평의 주제별 분포와 마찬가지로 문학 언어, 사회과학이 1, 2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과학기술, 철학 종교, 예술, 역사의

2) 대한출판문화협회, 韓國出版年鑑 1994. 서울: 대한출판문화협회, 1994. p.761

순서는 서평의 주제별 분포순위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둘째, 문학과 예술분야의 경우 출판종수와 서평의 비율이 비슷하지만, 과학기술과 철학 종교분야는 출판종수에 비해 서평의 비율이 낮고, 사회과학과 역사분야는 반대로 출판종수에 비해 서평의 비율이 높다. 특히 역사분야의 서평은 출판종수에 비해 2배내지 3배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주제별 분포 상의 차이는 주제별 평균발행부수의 차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결국 문헌의 가치와 독자의 관심 등이 서평대상 문헌의 선정에 반영된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보다 객관적인 산출방식과 근거가 요구되는 부분이라 하겠다.

서평대상문헌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서평문화와 출판저널의 서평전문지에서 드러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교양서보다 학술서에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조사결과 학술서 대 교양서의 비율은 서평문화가 1대 1 정도이며, 출판저널은 거의 2대 1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평전문지들이 서평대상문헌의 선정시 문헌의 대중적 상업적 가치보다는 학술적 가치를 중시하고 있다는 반증이며, 이는 이들 서평전문지의 서평위원들이 대부분 학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교양서를 선호하는 대다수의 일반 독자들을 위해서는 신문과 같은 대중매체의 역할이 보다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그리고 번역서에 대한 서평은 서평문화가 70건으로 전체의 31.1%를 차지하며, 출판저널은 115건으로 전체의 22.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과거 3년동안 아동도서 및 학습참고서를 제외한 번역도서의 출판종수가 모두 11,462종<sup>3)</sup>으로 전체의 22.6%를 차지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출판저널은 거의 같고, 서평문화는 번역도서의 서평 비중이 다소 높은 편이라 하겠다.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는 서평대상문헌을 반드시 우리나라에서 출판된 문헌에 한정해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국제화의 시대에 외국의 주요 출판물에 대한 서평작업도 충분히 고려할 시점에 와있다고 여겨진다. 물론 다양한 외국의 서평매체를 통해서 얼마든지 최신

3) 上掲書. p. 765

## 6 한국비블리아 제 7 집

정보를 획득할 수 있지만, 독자들이 그러한 매체에 접근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학술과 지식과 정보의 세계적인 흐름을 독자에게 신속히 전달하고, 국내서평을 통해 좋은 평가와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킨 도서를 우선적으로 번역 출판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비록 일반인을 독자대상으로 하는 서평지라 하더라도 전체 출판물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아동도서와 학습참고서에 대한 서평여부도 신중히 고려해 보아야 한다. 이들 문헌의 평가를 아동 및 청소년, 또는 담당교사의 판단에만 맡겨두어서는 안될 것이다. 서평활동이 양서의 출판을 촉진하고 불량도서의 출현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면 무엇보다 우선 되어야 할 분야가 바로 아동도서와 학습참고서 분야인 것이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서평문화에서 다루고 있는 쟁점도서는 불량도서의 추방과 출판의 건전한 풍토 조성, 자제력을 상실한 문헌의 범람을 방지하기 위해 효과적인 방안의 하나이며, 각 분야로 좀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서평대상문헌은 대개가 개별적인 단일 저작에만 한정되어 있는데, 특정 논제에 관한 다수의 저작, 동일주제분야나 저자의 주요 저작들에 대한 서평을 보다 활성화시켜야 한다. 이는 독자가 각 문헌의 성격과 차별성, 문제해결을 위한 저자 개인의 관점과 노력을 이해하고 나아가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각과 지식을 획득하는 데 매우 적합한 접근방식이기 때문이다.

### 3. 서평자의 선정

공정하고 권위있는 서평은 서평대상문헌의 객관성있는 선정보다는 오히려 적합한 서평자의 선정여부에 달려 있다. 서평이란 어느 이차 자료보다 작성자의 주관적인 가치판단이 개입되는 성격의 자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평자는 주제분야의 전문지식과 문장력은 물론 문헌비평자로서의 확고한 의식과 서평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요구된다.

서평전문지인 서평문화와 출판저널에 1991년부터 1993년까지 3년동안 서평을 게재한 서평자의 직업별 분포는 표 3과 같다.

〈표 3〉 서평자의 직업별 분포

직업 \ 서평지	서 평 문 화		출 판 저 널		계	
	연인원	%	연인원	%	연인원	%
대 학교수	171	76.0	348	68.1	519	70.5
대 학강사	9	4.0	63	12.3	72	9.8
연 구 원	17	7.6	19	3.7	36	4.9
기 자, 언 론인	8	3.6	4	0.8	12	1.6
기 타 평론가	20	8.9	77	15.1	97	13.2
계	225		511		736	

서평자의 직업별 분포는 서평문화의 경우 대학교수, 문학평론가를 비롯한 각 분야의 평론가 그룹(기타 전문직 종사자), 연구원, 강사, 언론인의 순이고, 출판저널은 대학교수, 평론가 그룹, 강사, 연구원, 언론인의 순이다. 전체적으로 대학교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서평문화가 76%, 출판저널이 68.1%로 절대 다수에 해당한다.

대학교수 다음으로는 강사와 연구원, 신문기자, 기타 문학평론가를 비롯한 전문직 종사자들이 서평자로서 비교적 많은 참여를 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이 서평자로 선정된 것은 무엇보다 주제분야의 전공지식과 우수한 문장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와 기대치가 높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들이 작성한 서평이 과연 질적으로 우수한 서평인가 하는 점이다. 실제 서평전문지에 게재된 서평 중에는 공정성을 상실하거나 서평으로서의 형식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서평이 적지 않다. 이는 서평자로서의 의식결여와 서평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기인된 결과이다. 그러므로 서평자의 선정시 주제분야의 전공지식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서평자로서의 책임감과 서평에 대한 지식이라 할 수 있다. 실제 서평자는 심오한 학식보다는 광범위한 전문지식과 문헌에 관한 폭넓은 지식, 노련한 비평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sup>4)</sup>

4) Helen E. Haines, *Living with books*. New York: Columbia Univ. Press, 1950. pp. 107-108

이러한 지식과 의식은 오로지 문헌비평 전공자로서의 교육과 경험, 그리고 전문가정신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그리고 서평전문지를 조사해 보면 서평문화와 출판저널의 서평자들은 극소수의 서평위원그룹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일과성의 서평자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주제의 전문성과 인원의 다양성은 비록 표방할 수 있으나 서평전문지로서의 권위는 상실하는 요인이라 하겠다. 왜냐하면 일과성의 서평자라는 것은 서평전문가가 아닌 서평초보자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정하고 권위있는 서평을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는 적합한 서평전문가를 발굴하고 부족한 서평전문가를 양성하는 일이다.

일반적으로 사서는 모든 문헌의 존재 그리고 각 문헌의 가치와 특성을 알아야 하며 같은 주제의 문헌들 가운데서 이용집단의 요구에 가장 알맞는 것을 선택하는 능력이 필요하다.<sup>5)</sup> 특히 문헌의 평가를 담당하는 사서에게 요구되는 사항은 도서와 독서에 대한 흥미, 각 분야 또는 자기 담당분야의 도서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 각종 서지 및 서평지에 대한 지식, 서평 및 해제의 기술연마, 공정성이다.<sup>6)</sup> 이와 같은 요구사항은 서평전문가에게 요구되는 주요 덕목과 일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서가 서평전문지에 서평자로서 참여한 예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비록 문헌을 서평하는 일이 사서에게 요구되는 의무의 일부는 아니더라도 서평의 방법론에 관한 지식은 책에 관한 견해를 형성하고 표현함에 있어 중요한 판단력과 관점을 보다 예리하게 하고 분명히 하는 데 도움이 된다.<sup>7)</sup> 그러나 서평계에서는 사서의 전문성과 잠재력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며, 사서는 서평자로서의 기능과 직무를 방치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근본적으로 사서의 주제 전문성과 문장력에 대한 회의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모든 사서가 유능한 서평자일 수는 없다. 그러나 사서는 독자의 요구와 수준을 가장 잘 이해하며, 저자나 출판사와의 관계에서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또

5) 최성진, *도서관학통론*. 서울 : 아세아문화사, 1988. p. 125

6) 韓國圖書館協會, *圖書館實務便覽*.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1966. pp. 266-267

7) Helen E. Haines, *op. cit.*, p. 123



한 많은 사서들이 담당분야에서의 오랜 실무경험과 재교육을 통해 주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문장력은 직업보다는 적성과 끊임없는 연마에 따라 좌우되는 개인차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서평전문가는 사서집단 내에서 양성되는 것이 이상적이다. 다만 사서들이 그동안 도서관 내에서의 비공식적인 서평자에서 신문, 잡지 및 전파매체를 통한 도서관 밖의 서평전문가로서 활동 영역을 확대하려는 인식전환과 자기계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상당수의 사서들은 잠재적이지만 이미 유능한 서평자인 것이다.

#### 4. 서평의 구성요소와 그 전개

서평의 구성은 그것을 수록하는 매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며, 그것이 단순한 소개적 서평인지 기술적 또는 비평적 서평인지 일괄적 서평<sup>8)</sup>인지에 따라 차이가 나기 마련이다. 또한 서평자의 개인적인 성향에 따른 개인차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비록 서평이 어느 이차 자료보다 형식상 자유로운 체제로 작성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서평이 독자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기술상의 제반 요소들을 고루 갖추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비판적인 독서지도를 위해 서평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저자의 경력과 작품, 서명, 출판사와 출판년도, 크기 면수 삽도 정가, 내용의 줄거리, 비평, 표현, 인쇄 제본 활자 지질, 이 책은 어느 단계의 사람에게 적당한가, 독서상의 주의점, 감상 등<sup>9)</sup> 이라고 한다.

서평의 구성요소란 그 서평이 독자에게 어떠한 도움을 제공할 것인가에 달려있다. 서평은 우선 독자들에게 새로운 문헌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이다. 따라서 서평은 독자가 문헌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해당문헌의 저자사항, 발행사항, 형태사항, 그리고 내용사항 등의 요소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서평은 독자들에게 특정 문헌에 대한 전문가적 해석과 평가

8) *Ibid.* p. 104

9) 孫正彪, 讀書指導方法論. 서울:學文社, 1985. p. 171

를 제공하는 자료이기도 하다. 독자가 혼자서는 깨닫기 어려운 특정 문헌의 성격과 가치를 독서에 앞서 발견토록 한다는 것은 서평 고유의 주요 기능이다. 그러므로 서평은 서평자의 주관적인 가치판단에 따른 대상문헌의 특성, 가치, 한계, 그리고 장단점 등이 독자수준에 맞게 기술되어야 한다.

서평전문지인 서평문화와 출판저널의 각종 서평을 분석해 보면, 서평표제와 간단한 서지사항의 기입 아래 일반적으로 기술되고 있는 비소설류 서평의 주요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첫째, 저자의 경력과 집필동기이다.

저자 및 번역자의 학력과 전공, 주요 경력, 특히 서평대상문헌과 관련된 분야에서의 활동상황, 경륜과 업적, 그리고 저술의 직접적인 집필동기 등을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항은 대상문헌이 과연 관련분야에서의 권위자, 또는 적절하고 합당한 전문가에 의해 저술된 것인지의 여부를 독자가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는 요소이다. 간혹 저자의 경력을 장황하게 늘어 놓거나, 저자의 업적을 지나치게 칭송하고 경하하는 서평이 있다. 대개가 서평자와 저자의 친분에 따른 경우로 독자의 판단을 흐리게 한다.

둘째, 저술의 출간경위이다.

저자의 저술이 본시 어떠한 종류의 자료였는지, 또는 어떠한 경로를 거쳐 출판되었는지 그 사정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사항은 문헌의 본래 형태나 성격, 출판동기나 경위가 특별한 경우에 한정되고 있는데, 독자가 대상문헌의 성격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보조적인 요소라 하겠다.

셋째, 주제분야의 연구동향과 관련문헌의 개관, 전문용어 및 개념의 해설이다.

서평대상문헌에서 다루어진 주제분야의 연구동향이나 선행연구, 관련 문헌들을 개괄적으로 고찰하고, 전문적이고 새로운 이론이나 용어, 개념 등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사항은 독자가 대상문헌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초지식을 제공하는 기본적인 요소이다. 이를 생략한 서평이나, 지나치게 상세히 기술한 서평을 찾아볼 수 있다. 서평자가 독자의 수준을 잘못 판단한 결과라 하겠다.

넷째, 내용의 요지와 구성, 저자의 관점이다.

저술내용을 목차순서대로 요약하거나 중요한 사항만을 간추려 소개하고, 문헌에 내재된 저자의 관점을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항은 독자가 저자의 주장과 문헌의 요지를 개략적으로나마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기본적인 요소이다. 서평에 따라서는 지면의 거의 대부분을 내용소개에 할애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서평자가 시간과 노력을 별로 들이지 않고 무성의하게 작성한 서평이라 하겠다.

다섯째, 저술의 특성과 가치이다.

서평대상문헌과 여타 관련문헌을 비교하여 우열을 가리거나, 대상문헌만이 지니고 있는 특성, 독창성과 차별성을 판단하고, 연구 및 저술의 성과와 의의, 관련분야에의 기여도를 평가하고 있다. 독자가 대상문헌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문헌사적 가치를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서평자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평자가 저자와의 친분이거나 자신의 입장 때문에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며 책임있는 평가보다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이며 형식적인 수식어만 나열하는 경우가 많다.

여섯째, 저술의 한계와 오류, 서평자의 반론이다.

저술내용 가운데 기술이 잘못되거나 부족한 부분, 중요한 글자의 오타, 번역의 오류 등을 지적하고, 저자의 관점이나 주장에 대한 서평자의 반론, 견해, 제언 등을 전개하고 있다. 독자가 대상문헌의 제한점, 과오를 파악하고, 특정 문제에 대한 폭넓은 시각과 문헌의 평가능력을 배양하는데 도움을 주는 서평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서평자의 의식과 자질을 의심할 정도로 명백한 오류를 그대로 간과하거나, 서평자의 사견을 과다하게 나열하고, 가혹한 비난으로 일관하는 서평이 없지 않다.

일곱째, 대상독자의 한정과 독서의 의의 및 안내이다.

대상문헌에 알맞는 독자의 수준과 유형을 한정하고 독서의 효과와 의의, 그리고 대상문헌과 관련하여 읽고 참고할 가치가 있는 다른 문헌을 제시하고 있다. 독자에게 독서를 권장하고 안내하는 요소이다. 이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잘 기술하고 있는 서평은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여덟째, 문헌의 형태적 사항이다.

대상문헌의 특징있는 장정과 크기, 삽도, 레이아웃 등과 같은 물리적

인 사항들을 점검하고, 그 적절성 여부를 판단한다. 독자에게 대상문헌이 효과적인 정보전달과 보전을 위한 체재와 형식, 조화미를 갖추었는지 알려주는 요소이다. 이 부분에 대한 기존 서평자의 전문지식과 인식 부족으로 언급되고 있는 서평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서평의 주요 구성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전개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서평자의 논리성을 요구한다. 서평문화와 출판저널에서 살펴볼 수 있는 서평구성의 일반적인 경향은 먼저 저자의 경력과 집필동기, 출간경위, 주제분야의 개관을 서평의 서론에 해당하는 앞부분에서 다루고, 본론이라 할 수 있는 가운데 부분에서는 내용구성과 저자의 관점, 저술의 특성과 가치를 다루며, 결론에 해당하는 뒷부분에서 저술의 한계와 오류, 서평자의 반론, 대상독자와 독서의 의의, 문헌의 형태적 사항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성요소들을 어떠한 순서로 체계있게 전개하였는가의 문제보다 주요 요소들을 얼마나 적절하고 균형있게 기술하였는가를 하는 문제이다. 실제 비교적 짧은 1,500자 내외로 서평이 작성되는 출판저널이나 4,500자 정도의 충분한 분량으로 작성되는 서평문화의 서평 중 상당수는 서평의 각 요소를 고루 언급하고 있지 못하며, 단지 그 일부만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물론 서평의 한정된 지면 안에서 서평자가 각 저술별로 중점을 두는 요소에는 당연히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다만 그러한 사실을 고려하더라도 여타 주요 사항들을 배제하고 지면 대부분을 내용요약이나 주제배경, 또는 반론의 전개에 할애하는 서평은 지양되어야 한다. 실제 서평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사항은 순서의 도치나 보다 상세한 기술, 반복적인 언급을 통해 독자에게 충분히 호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느 한 요소에 치우친 서평은 무엇보다 서평자의 서평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되며, 서평대상문헌에 대한 무지, 저자에 대한 극단적인 감정, 서평자의 자기과시욕에서 기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서평자는 서평을 작성함에 있어 독자가 서평의 각 요소별 영역과 저자의 말인지 서평자의 말인지를 용이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기술해야 한다. 모호한 기술은 서평자의 무지나 무성의를

반증할 뿐이다.

## 5. 결 언

서평은 문헌이용자를 위한 문헌비평매체이다. 우리나라의 서평전문지인 서평문화와 출판저널에 수록된 서평의 경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서평문화와 출판저널에 수록된 서평의 주제별 분포는 서로 비슷하다. 서평의 주제별 분포와 출판물의 주제별 분포를 비교해 보면 대체로 역사와 사회과학분야에서 서평비율이 높고, 과학기술을 비롯한 다른 분야는 출판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둘째, 서평전문지는 독자층보다 문헌의 질적 가치를 중시하여 교양서보다 학술서에 대한 서평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고 있으며, 번역서의 서평비율은 번역서의 출판비율과 대체로 유사하다. 그러나 외국출판물과 전체 출판물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아동도서 및 학습참고서에 대한 서평은 전무하다.

셋째, 서평전문지의 서평자는 주제분야의 전공지식과 문장력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대학교수 및 강사, 연구원, 기자, 문학평론가 등에 한정되어 있으며, 도서관 사서의 공개적인 서평활동은 전무하다.

넷째, 서평전문지의 서평은 저자의 경력과 주제분야의 연구동향, 내용의 요지와 구성, 저술의 특성과 가치, 저술의 한계와 서평자의 반론 등을 기본적인 구성요소로 하고 있으며, 보조적인 요소로 저술의 집필동기 및 출간경위, 관련문헌의 개관, 전문용어 및 개념의 해설, 저자의 관점, 대상독자의 한정, 독서의 의의 및 안내, 문헌의 형태적 사항 등을 다루고 있다.

다섯째, 서평전문지에 수록된 상당수의 서평은 공정성을 상실하거나 서평으로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특정요소의 기술에 편중되어있으며, 형식적이고 상투적 어구로 모호하게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서평의 형식을 통한 문헌비평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모색되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문헌비평의 대상범위는 개별적인 문헌의 가치와 사회적 요구 외에 주제 및 유형별로 출판종수와 출판부수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

다. 또한 출판의 건전한 풍토조성과 독자의 체계적인 정보획득을 위해 불량도서에 대한 비판적 비평과 다수의 저작에 대한 일괄적 비평이 활발히 전개되어야 한다.

둘째, 문헌비평의 공정성과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정 주제영역의 전문가를 일과성으로 활용하는 것보다 전문적인 문헌비평가를 양성하여 활용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문헌비평가로서의 확고한 의식과 문헌비평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춘 전문가는 폭넓은 주제배경과 문헌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조사 및 분석 경험이 있는 사서집단에서 발굴하고 양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셋째, 문헌비평은 수록 매체의 성격이나 분량, 독자 및 이용자의 수준, 비평자의 개인적인 성향을 감안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새로운 문헌에 대한 구체적 정보와 전문가적 해석, 평가를 제공하기 위한 요소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 서평문화 1집-12집.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1991-1993.  
출판저널 75호-140호. 대한출판문화협회, 1991-1993.  
김상호, “한국의 서지학 연구동향” 書誌學研究 8집 (1992)  
대한출판문화협회, 韓國出版年鑑 1994. 서울: 동협회, 1994.  
孫正彪, 讀書指導方法論. 서울: 學文社, 1985.  
千惠鳳, 韓國書誌學. 서울: 민음사, 1993.  
최성진, 도서관학통론. 서울: 아세아문화사, 1988.  
韓國圖書館協會, 圖書館實務便覽. 서울: 同協會, 1966.  
韓國圖書館協會, 圖書館情報管理便覽. 서울: 同協會, 1994.  
Haines, Helen E., *Living with book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50.  
Merritt, Leroy C., *Reviews in library book selection*. Detroit: Wayne State University Press, 1958.

## ABSTRACTS

### **A Study on the book reviews published in review periodicals**

Kim, Sang-Ho\*

This study is concerned with analysis of all the reviews published by the reviewing periodicals, *The Book Review Culture* and *The Korean Publishing Journal*, from 1991 to 1993.

The result of analysis for 736 reviews are followed :

1) The percentage of reviews in the field of philosophy & religion, literature & language, science & technology is lower than the percentage of books published. But in the field of history and social science the reviewing is proportionately higher than the publishing.

2) Book reviews are prepared by professors, literary reviewers, researchers, and experts in the particular subject field except librarian.

3) Basic elements of reviewing are the career and view point of author, trends of subject field, content, value, omissions, limitations, and format of book, reader's level, etc.

Ideal method of book criticism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criterion of book selection are the book's value, the social demand, and the proportion of titles published.

2) For the unbiased criticism, it should be written by the experienced librarian rather than the experts of particular subject field.

3) Book criticism need to provide not only guide to new books but also interpretation and evaluation about each book for its reader.

---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aegu University